

사회 복지

3 湖南新聞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 정책이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법,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시행하고 있다.



‘도서관 장애인 자원봉사자 심화교육’...활동사례 공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14일 디지털 도서관 지하 3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도서관 장애인 자원봉사자 심화교육을 했다.

시각·청각·발달 장애인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40여명이 활동사례를 공유했다.

11월에는 하반기 자원봉사자 심화교육을 한다. 모집공고는 10월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Photo 漫評

극과 극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1980년 5월 21일)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군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0일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에게 ‘50호인대장 등 74명 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며 “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행계획서를 피하지 않았다면 자료 가남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상해 본다.

글=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스스



20 세 이하 월드컵 선수들



골든볼 수상



국회

우리는 싸움질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서 일하는 장애인 8000명 돌파

고용노동부, 지난달 말 기준 342곳에서 8069명 근로 중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대상 65개소 선정...최대 10억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8000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342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8069명이 일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말한다.

고용부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대상 65개소를 선정했다.

고용부는 65개소에 대해서는 작

업 시설, 부대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후 1년 안에 약정한 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소 7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으로 향후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481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표준사업장 지원 규모는 47개소였다. 올해 65개소로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새로 설립하려는 곳은 44개소이고 이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생산 시설 등을 확장토록 지원받는 곳은 21개소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형, 자치단체 참여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유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동 투자해 설립하는 연합체(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절실하므로 장애인 고용 문제를 빼놓고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높이고 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와 사회적경제 온라인 상점 운영을 통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스



현열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승현, 박재민, 남현희 전 펜싱선수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마트홀에서 열린 '2019 세계 현열자의 날 기념식'에서 박경서(왼쪽 두번째)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승현(맨 왼쪽), 남현희 전 펜싱선수, 배우 박재민(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훈처, ‘따뜻한 동행’ 사업 추진

전기세 감면 발급·소방시설 보급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확대를 위한 ‘보훈가족과 따뜻한 동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훈처는 ‘따뜻한 동행’ 사업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KEPCO)와 협

업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복합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된 본인이나 수권자 등에 대해 전기세를 감액해주고 있다.

또 소방청과 협조해 노후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중상이자 등 안전취약대상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화재 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직능단체,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도 지원된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한국이용사회중앙회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한국방역협회에서는 주거환경 소독봉사를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한미글로벌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내달 19일까지...2팀 선발해 5천만원·전문가멘토링 지원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한미글로벌과 함께 제2회 따뜻한동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대학생 팀, 동아리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심사, 현장실사·결선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되며 결선에서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의 투표를 통해 최종 2팀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2팀에는 총 5천만원의 사업 실행금과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해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소셜임팩트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훈 따뜻한 동행 이사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판을 마련

시키고, 참가 팀이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뜻한동행은 서류심사에 합격한 팀 전체에도 코칭 전문가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해 향후 사업을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에 대한 관심이 확산돼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모사업 참가를 원할 시 따뜻한동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을 통해 내달 19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따뜻한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2010년 설립돼 장애인들을 위한 공익복지 지원, 첨단보조기구 지원, 일자리 창출·자원봉사 활동 지원과 국제개발 협력 등을 실시하는 순수 비영리단체다.

뉴스스

아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아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음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